

▶ 이 사람 - 미국 명문 보스턴발레단 한서혜

# “외모보단 발레가 아름다워야죠”

“한국에서는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주로 들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유 헤브 어 뷰티풀 페이스(you have a beautiful face)’가 아닌 ‘유 아 뷰티풀(you are beautiful)’이라고 해주셨어요. 얼굴만이 아닌 전부를 통틀어 아름답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미국 빅4 발레단으로 통하는 명문 보스턴발레단 수석무용수 한서혜(28)는 입단 4년 만인 지난해 5월 이 발레단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첫 수석무용수가 됐다. 현재 이 발레단의 여성 수석무용수는 한서혜를 포함해 5명뿐이다.

몸의 표현력과 캐릭터 연기력이 강점인 한서혜는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발레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단숨에 이 발레단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7~28일 서울 잠종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4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월드 갈라’를 통해 고국팬을 만난 자리에서도 보스턴발레단 소속 무용수인 이틀란 다 실바와 함께 몸과 연기 등 발레의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증명했다.

최근 광화문에서 만난 한서혜는 “어렸을 때 외모가 콤플렉스였다”고 했다. 2010년 한국의 유니버설발레단에 몸 담았을 당시 KBS 2TV ‘1박2일’에 출연해 ‘얼짱 발레리나’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던 그녀다.

“어렸을 때는 외모로 칭찬 받으면 실심이 아닌 실수를 부렸어요. 나는 발레를 잘하는데 왜 외모로 칭찬을 하지는 생각을 가졌던 거 같아요. 주변 아주머니들도 발레학원 선생님이신 어머니에게 ‘서혜는 예쁘니까’라고만 말씀하시니, 어린 마음에 슬프기도 했죠. 그래서 한때는 진지하게 연예인을 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김태희만큼 예쁘지 않다’고 해서 바로 접었죠. 호호. 지금은 외모 칭찬 받는 것이 좋아요. 무용수로서 매력을 더해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화려한 미모 탓인지 한서혜의 첫 인상은 새침하고 도회적이다. 쉽게 다가갈 수 없

는 인상이지만 실제 알고 보면 다들 훈수라고 한다고 웃었다. 실제 만난 그녀 역시 소탈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야식으로 치킨과 짬밥을 먹는 것’이었는데 다 이뤄서 기쁘다고 했다. 실제 먹는 걸 좋아하는 그녀는 이날 중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가족들과 ‘떡방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먹는 걸 좋아해서 발레를 안 했으면 (몸매를 관리하는 데) 큰 일 날 뻔했다”고 웃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7세 때 발레를 시작한 한서혜는 16세 때인 2005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예술영재로 입학하며 주목 받았다. 졸업과 동시에 유니버설발레단에 특별로 입단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다 3년 만에 해외 진출을 위해 발레단을 떠나는 용기를 냈다. 주변에서 대부분 말렸지만 김혜식 한예종 초대 무용원장 등 그녀를 믿어준 어른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또 중요했던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잘못하면 자만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한국의 발레단을 내려놓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좀 더 용기를 내고 싶었고, 무모하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한번 해보고 싶었죠.”

한서혜의 용기와 실력 그녀를 위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맞물리면서 결국 2012년 6월 보스턴 국제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이던 미코 니시넨 보스턴발레단장에게 발탁돼 같은 해 9월 군무로 입단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다가 입단 3개월



입단 4년만에 한국인으로서는 첫 수석무용수 돼

어머니의 영향으로 7세때 발레를 시작한 발레단 ‘간판스타’

만인 같은 해 말에 오른쪽 뒤통치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입단 첫해에 ‘호두까기 인형’ 주역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1인8억 등을 맡아 무리를 한 탓이었다.

이후 한서혜는 보스턴 발레단의 ‘블루칩 발레리나’로 떠올랐다. 2014년 미국의 대표적 무용 잡지인 ‘댄스 매거진’ 3월호 표지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다 아는 것처럼 이 발레단의 간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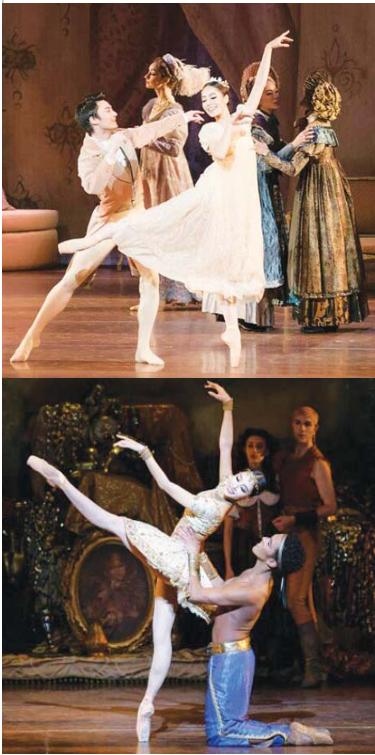
수석무용수라는 타이틀을 단 이후 책임감이 부쩍 커졌다고 했다. 그녀가 이 발레단에 입단한 후 솔리스트 채지영, 그리고 이소정, 이승현 등 한국인 무용수들이 함께 발레단에서 활약하면서 책임감이 더 커졌다. “친동생 같은 친구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이죠. 이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전히 팬층이

두터워 그녀의 한국 공연이 있는 날이면, 갈라무대라 해도 객석은 가득 찬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감사하죠. 제 팬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매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서혜의 다음 목표는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감히 제가 한국발레계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는 말은 못하죠. 지금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후배들에게 소소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정상급의 위치에 가게 되면 그때 바로 후배들에게 자리를 이어주고 싶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가 되는 것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멋있을 때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도 크요.”

뉴스



순창군이 한여름밤의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해 피서객과 군민들의 더위를 날리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순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최중섭)가 주관하는 이번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오는 14일 월요일 일품공원 소공연장에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순창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한여름 밤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수제맥주 등 우리지역 먹거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행사다.

특히 지역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음악회 공연도 다채롭게 진행돼 군민들도 한 여름 밤 더위를 식히고 수제맥주를 마시면서 가족과 함께 음악도 즐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여름밤에 펼쳐지는 ‘수제맥주 큰잔치’

순창 일품공원 소공연장에서 14일 수제맥주 페스티벌 개최

수제맥주는 무료 시음 프로그램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판매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단 수제맥주와 함께 즐기는 안주류는 정상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번 페스티벌이 타 지역 치맥페스티벌과 다른 점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제맥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다. 이번 행사에 맥주를 공급하는 장안크래프트는 2002년부터 순창에 동지를 쓴 국내 대표적 수제맥주 회사다.

보존제나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원료와 재료를 필터로 걸러내지 않아 풍부한

영양분과 살아 있는 효모가 발하는 깊은 맛을 맛 볼수 있는 크래프트 맥주를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생산하고 있다.

특히 대표 맥주제품인 6가지 맥주 중 하나는 ‘IPA 순창’이란 이름을 붙여 지역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또 순창블루베리를 활용한 수제맥주를 개발하는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맥주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이번 수제

맥주 페스티벌을 통해 파르레리 수제맥주가 순창의 또 다른 특산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제맥주 페스티벌 수익금은 관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여름 밤의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순창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 줄 수 있는 행사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www.namwon.go.kr

광한루원, 구룡계곡, 뱀사골계곡,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월매를 사랑한 놀부, 남원에촌

맛과 멋이 특별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남원시